

“국민이 만들어준 38석... 변화·쇄신 주도하는 민생정당 되자”

국민의당 국회의원 당선자 워크숍

안 “의원은 국민에 고용된 직원”
千 “소통·화합... 힘 한데 모아야”
공정성장 등 20대 1호 법안 제안



국민의당 안철수·전정배 공동대표와 20대 총선 당선자들이 26일 오후 경기도 양평 한화리조트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당은 26일 경기도 양평에서 국회의원 당선자 워크숍을 열고 20대 국회에서 성실한 의정활동을 통해 정국의 변화와 쇄신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또 20대 총선 평가와 함께 향후 통과시킬 주요 법안과 당의 전략 기조도 발표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의원은 벼슬이 아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에 의해 고용된 국민의 직원”이라며 “정부를 감시하고 어떤 법이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지, 국민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국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민께서 국민의당에 부족하지만 기회를 주었다”며 “이제 우리가 보답할 때이며 그것이 정책정당 수권대안정당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했다.

전정배 공동대표도 “국민의 뜻을 하늘처럼 받들고 경제와 민생을 해결하는 민생 제일 정당이 되어야 한다”며 “막중한 시대적 책임감을 가져야 하며 의원들이 소통, 화합하고 힘을 한데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강연에서는 국민의당이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조언이 쏟아졌다.

김병준 전 참여정부 대통령실장은 현 국정운영체제를 ‘고장난 자동차’라고 비유한 뒤, 국민의당이 단순히 캐스팅보트 역할에만 머무르지 보다는 3당에 걸맞는 새로운 정책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당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연립정부론’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박상병 인하대학교

정책연구원 초빙교수는 “연합정부론은 대선 정국의 마지막 카드로 벌써부터 공문화시키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며 “연합정부를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의당이 단독으로 집권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태규 전략홍보본부장은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 ▲야권 단일화 신화 ▲새누리당 콘크리트 지지율 신화 ▲기술이진 운동장 신화 ▲지역주의 등 4가지

선거 신화가 붕괴됐다고 분석했다.

장병안 정책위의장은 공정한 제도를 통해 혁신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고 20대 국회에서 제출할 1호 법안으로 ▲공정성장 3법을 손질한 공정성장법, ▲정치인의 공공기관 취임을 제한하는 내용의 낙하산 금지법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짓는 컴백주택 등이라고 밝혔다.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중점법안으로는 ▲청

년고용촉진특별법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을 제시했다.

1박 2일간 이어지는 워크숍에서 당선자들은 전남 지도부간 합의된 전당대회 연기를 확정된 뒤 원내 대표 추대, 당직 개편 문제 등에 대해서도 집중 토론할 예정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박지원 “원내대표 짐 지겠다”

합의추대론 사실상 수용... 유성엽 의원 “경선해야”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이 26일 당내 합의를 전제로 원내대표 추대론을 사실상 받아들였다. 그동안 당권이나 대권 의지를 드러낸 박 의원이 원내대표를 맡겠다는 입장으로 선화하면서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 등 당내 일각에서 주장한 박지원 원내대표 합의추대론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박 의원은 이날 PBC 라디오 ‘열린세상 윤재선입니다’ 인터넷에서 원내대표 추대론에 대해 “당내 분위기가 하나로 모아진다면 제가 그 짐을 젤 것입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호남 발전을 위해) 저에게 대권, 당권 나가라는 요구가 많았고 저도 그런 결심을 했다”면서 “그러나 이제 전당대회가 7~8개월 연기되거나 제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은 조금 온당치 못했고 국회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유성엽 의원은 경선이 바람직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저로서는 만약 원내대표를 해서 당 대표나 대권에 도전했을 때 이것이 독이 될지 약이 될지 모르겠다”며 경선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그는 전당대회 연기로 안철수 대표와 자신이 각각 대권과 당권 도전에 필요한 시간을 벌었다는 지적에는 “안철수의 대권 가도, 박지원의 무슨 가도 그런 것을 하는 국회가 돼서는 또 한 번 ‘제2의 문재인’의 길을 간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도 “안철수 대표 측에서 원내대표 추대론이 나왔고 저는 18대, 19대 국회에서 원내대표를 두 번이나 했기에 후배들

에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고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3당제 선도체제로 안철수, 전정배 공동대표와 일하는 민생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과 당 대표로 가야 한다는 견해가 갈린다”며 “성공하는 국회만이 정권교체를 가져 오기에 오늘 당선인 워크숍에서 동료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의 합의추대 여부는 원내대표 출마 의사가 있는 김동철·유성엽 의원 등의 반발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유 의원은 박지원 추대론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유 의원은 TBS 라디오 ‘열린야심 김만홍입니다’ 인터넷에서 “우리가 민주정당을 지향한다면 새롭게 어떤 민주적인 방식으로 원내대표를 결정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국민의당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전당대회를 연기하면서 박 의원을 합의추대하면 이게 잘못하면 정치적 담합, 야합으로 비춰 국민에 안 좋은 인상을 줄 우려가 있다. 오늘 워크숍에서 최종 논의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유력한 차기 원내대표 도전자로 꼽혀왔던 주승용 원내대표는 “박 의원이 (원내대표직을 수락)하겠다고 하면 후배로서 경선을 주장하지는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세균 “대권·국회의장 도전 신중히 검토”

“호남민심 지역경제 활성화 체감할 수 있어야 누그러질 것”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오세훈 후보를 꺾고 6선 고지에 올라 야권의 대선주자로 떠오른 정세균 전 민주당 대표(더불어민주당·서울 종로)는 25일 “당선 이후 주변에서 많은 권유를 받고 있는 대권과 국회의장직 도전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전 대표는 이날 광주일보와의 대담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광주에서 참패한 것에 대해 일시적 반성이 아닌 지속적인 자성의 정치를 보여야 한다”며 “호남인들의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져왔을 때 다소나마 민심이 누그러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호남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 전 대표는 “호남인으로서 유일하게 대한민국 정치 1번지인 광주에서 재선된 이후 주변에서 대권 도전에 대한 많은 권유를 받고 있지만 신중히 접근해야 할 문제여서 정치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민주 내부에서 거론되는 국회의장직에 대해 정 전 대표는 “20대 국회는 3당 체제여서 이를 중재할 국회의장직이 매우 중요하다”며 “오랜 경륜을 바

탕으로 오로지 국가만을 위해 일하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적임자인 만큼 이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 진안·무주·장수·임실에서 4선을 한 정 전 대표는 지난 19대 총선 때 서울 종로로 진출해 당선된 이후 이번 총선에서는 여권의 유력 대선 후보 중 한 명이었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따돌렸다.

정 전 대표는 광주일보가 실시한 창사 64주년 특집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권후보 적합도 조사결과 4.0%의 지지율을 얻어 호남을 대표하는 유일한 대권 후보로 부상했다. 이 조사는 지난 16일 광주·전남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12명(광주 506명·전남 506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내에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1.9%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여행길의 즐거운 동반자!!
광주광역시동구 금남로5가 151-번지 1층
Tel. (062)234-3222 Fax. (062)234-3141
NAVER **조이투어** 검색

2억 영업보증보험 가입업체
조이투어
JOY TOUR CO., LTD
http://www.joytour.kr


대표이사 최금환



카메라로 떠나는 일본 후쿠오카 벚꽃+온천 여행~!!

출발일 5/8, 5/14, 5/22, 5/29

- ▶ 가족과 함께 떠나는 아마다세 고급 별장 온천여행 4일 ₩529,000~
- ▶ [품격] 전통료칸 온천여행 4일 ₩559,000~
- ▶ [고품격] 전통료칸 온천여행 + 후쿠오카 특급 4일 ₩599,000~
- ▶ 부관철회 북규슈 미야지마, 이와쿠니 3박4일 특가 1인당 ₩449,000~

포함 : 선박왕복, 유류세, 부두세, 일정표상의 일정, 입장료, 가이드비, 국내수송비
불포함 : 여권 및 개인경비, 신용카드

2016년 무안출발 “징기스칸의 나라” 몽골 여행!!

출발일 7/28, 8/1, 8/6, 8/11

울란바토르, 테를지	<p>3박5일 ₩1,499,000 출발일 : 7/28, 8/11</p> <p>4박6일 ₩1,649,000 출발일 : 8/1</p> <p>4박6일 ₩1,599,000 출발일 : 8/6</p>	트래킹
	<p>3박5일 ₩1,499,000 출발일 : 7/28, 8/11</p> <p>4박6일 ₩1,599,000 출발일 : 8/1</p> <p>4박6일 ₩1,549,000 출발일 : 8/6</p>	

불포함 : 신용카드, 호텔(2인실)/캐리(4인실기준), 가이드 및 기사 봉사료, 발맞사지 봉사료

민족의 영산 백두산!!
무안공항 - 연길 / 백두산 전세기

▶ 출발일 7/31 ~ 8/24(수, 토 출발)

- ▶ 북파·용정·도문 4일 [실속] ₩1,140,000~ [품격] ₩1,250,000~
- ▶ 북파·서파(천지2회) 4일 [실속] ₩1,250,000~ [품격] ₩1,340,000~
- ▶ 북파·서파·용정·도문 5일 [실속] ₩1,290,000~ [품격] ₩1,390,000~

불포함 : 신용카드, 개인경비 및 공항수송비, 가이드(기사팀)(9박~\$30, 4박~\$40)

무안 → 북해도(삿포로) 전세기 취항

- ▶ 출발일 7/31, 8/4, 8/8, 8/12
- ▶ 노보리베츠, 도야, 사코탄, 오타루, 삿포로 5일 ₩1,599,000~
※ 삿포로 1일 자유일정
- ▶ 노보리베츠, 도야, 사코탄, 오타루, 삿포로, 후라노, 비에이 5일 ₩1,699,000~
※ 3대 게요리 포함
- ▶ 노보리베츠, 도야, 오타루, 삿포로, 하코다테, 후라노 5일 ₩1,799,000~
※ 3대 게요리 포함

불포함 : 개인경비, 기타매너팁, 기사&가이드 경비(₩4,000/인)

무안에서 떠나는 중국여행~!!

- ▶ 북경, 만리장성 4일 ₩650,000~ ※화요일 출발
- ▶ 북경, 고북수진 4일 ₩750,000~ ※화요일 출발
- ▶ 연산, 태항대협곡 5일 ₩1,150,000~ ※금요일 출발

불포함 : 개인경비, 매너팁, 선택관광

인천에서 떠나는 중국의 숨은보석 산동성!!

- ▶ 산동성(치박, 제산, 제남) 4일 ₩699,000~
특전 : 광주-인천 왕복 수송 포함!!

불포함 : 개인경비, 매너팁, 선택관광, 광주-인천 이동 중 식사

- ▶ [항공] 광주-제주도 3일 ₩299,000~
불포함 : 기사&가이드팀(₩10,000), 현지지불관광, 석식2회
- ▶ [선박] 목포-제주도 3일 ₩189,000~
불포함 : 기사&가이드팀(₩10,000), 현지지불관광, 석식2회
- ▶ 광주-울릉도 3일 ₩345,000~
- ▶ 목포-홍도, 흑산도 2일 ₩155,000~

직원 및 일반어 가이드 모집

- 모집인원 0명
- 외국어구사 능력자 우대
- 해외여행에 걸려서류가 없는 자
- 운전면허 소지자
- 홈페이지 관리 유경험자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철저히 준수합니다. [등록번호 제2003-1호] 이마트는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투어**
 ● 공동여행 경비 1인 기준, 여행보증금 가입(여행상품: 국내상품 5천만원), 관광진흥개발기금, 관광 및 부두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 교통편 : 항공 및 선박, 전열버스/전지역 ● 상가 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억 원 영업보증보험 가입 / 여행금제 가입업체 ● 예약시 개인세(취소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십시오. ● 경비(매너팁, 기사/가이드봉사료, 선택관광, 각종 비비용) 별도 ● 최소 출발인원 : 상품에 따라 다름